

**정리 11.** 신 즉 실체는 무한[히 많은] | 속성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것들은 각각 영원하고 무한한 본질을 표현한다. 이러한 신 즉 실체는 반드시 실존한다. <=신 또는 실체는, 영원하고 무한한 본질을 제각각 표현하는 무한한 속성들로 |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서, 반드시 실존한다.>

**증명.** 만약 당신이 이것을 부정한다면, 가능하다면 신이 실존하지 않음을 인식해보라. 그렇다면 (공리 7에 따라) 그것의 본질은 실존을 함의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것은 (정리 7에 따라) 부조리하다. 따라서 신은 반드시 실존한다. 증명 끝.

**다르게.** 각각의 것(res)이 왜 실존하는지는 물론이고 왜 실존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원인 또는 근거가 지정될 수밖에 없다. 예컨대 어떤 삼각형이 실존한다면, 그것이 왜 실존하는지에 대한 원인 또는 근거가 있을 수밖에 없다. 반대로 그것이 실존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실존하지 못하게 하는, 즉 그것의 실존을 빼앗는 원인 또는 근거 역시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러한 근거 또는 원인은 사물의 본성 안에 들어있을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 본성 밖에 있을 수밖에 없다. 예컨대 왜 네모난 동그라미가 실존하지 않는지에 대한 근거는 그것의 본성 자체가 말해준다. 즉 그것이 모순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거꾸로 왜 실체는 실존하는지는 오로지 그것의 본성으로부터 귀결된다. 즉 그것이 실존을 품고 있기 때문이

*P r o p o s i t i o XI. Deus sive substantia constans infinitis attributis, quorum unumquodque aeternam et infinitam essentiam exprimit, necessario existit.*

*Demonstratio. Si negas, concipe, si fieripotest, Deum non existere. Ergo (per axiom. 7.) ejus essentia non involvit existentiam. Atqui hoc (per prop. 7.) est absurdum. Ergo Deus necessario existit. Q. e. d.*

*Aliter. Cujuscunque rei assignari debet causa seu ratio, tam cur existit quam cur non existit. Ex. gr. si triangulus existit, ratio seu causa dari debet cur existit; si autem non existit, ratio etiam seu causa dari debet, quae impedit quominus existat, sive quae ejus existentiam tollat. Haec vero ratio seu causa vel in natura rei contineri debet, vel extra ipsam. Ex. gr. rationem, cur circulus quadratus non existat, ipsa ejus natura indicat; nimirum, quia contradictionem involvit. Cur autem contra substantia existat, ex sola etiam ejus natura sequitur, quia scilicet existentiam involvit (vide prop. 7.). At ratio, cur circulus vel triangulum\* existit, vel cur non existit, ex eorum natura non sequitur, sed ex ordine*

다(정리 7을 보라). 반면 왜 원이나 삼각형이 실존하는지, 혹은 실존하지 않는지에 대한 근거는 이것들의 본성으로부터가 아니라 물체의 보편적 본성의 질서로부터 귀결된다. 다시 말해 이것으로부터 삼각형이 지금 필연적으로 실존하거나, 아니면 지금 실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귀결되어야 한다. 이는 그 자체로 명백하다. 이러한 점들로부터 귀결되는바 어떤 것을 실존하지 못하게 하는 근거나 원인이 없다면 그것은 실존할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만일 신이 실존하지 못하게 하거나 그의 실존을 빼앗는 어떠한 근거도 원인도 있을 수 없다면, 그와 같은 것은 실존할 수밖에 없다고 우리는 확실히 결론 내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만일 그런 근거나 원인이 있다면, 그것은 신의 본성 자체 안에 있든가 그 바깥에, 즉 다른 본성을 지닌 다른 실체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똑같은 본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라면, 바로 이 점으로부터 신이 있다는 것이 인정될 것이다. 하지만 그 실체가 다른 본성을 지닌 것이라면 그것은 신과 아무런 공통점도 지니지 않고(정리 2에 따라), 따라서 그것의 실존을 정립하지도, 빼앗을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신의 실존을 빼앗는 근거나 원인이 신의 본성 바깥에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실존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로써 모순을 함의하는 바로 그것의 본성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점을 절대적으로 무한하고 가장 완전한 존재자

universae naturae corporeae; ex eo enim sequi debet, vel jam triangulum necessario existere, vel impossibile esse ut jam existat. Atque haec per se manifesta sunt. Ex quibus sequitur id necessario existere, cujus nulla ratio nec causa datur, quae impedit quominus existat.

Si itaque nulla ratio nec causa dari possit, quae impedit quominus Deus existat, vel quae ejus existentiam tollat, omnino concludendum est eundem necessario existere. At si talis ratio seu causa daretur, ea vel in ipsa Dei natura, vel extra ipsam dari deberet, hoc est in alia substantia alterius naturae. Nam si ejusdem naturae esset, eo ipso concederetur dari | Deum. At substantia, quae alterius esset naturae, nihil cum Deo commune haberet (per prop. 2.), adeoque neque ejus existentiam ponere neque tollere posset. Cum igitur ratio seu causa, quae divinam existentiam tollat, extra divinam naturam dari non possit, debet necessario dari, siquidem non existit, in ipsa ejus natura, quae propterea contradictionem involveret. Atque hoc de ente absolute infinito et summe perfecto affirmare absurdum est; ergo nec in Deo nec extra Deum ulla

에 대해 긍정한다는 것은 부조리하다. 따라서 신 안에도 신 밖에도 그것의 실존을 빼앗을 수 있는 어떠한 원인이나 근거는 있지 않다. 그러므로 신은 반드시 실존한다. 증명 끝.

**다르게.** 실존할 수 없음은 무능력이며, 거꾸로 (자명한바) 실존할 수 있음은 능력이다. 그리하여 만일 지금 실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다른 아닌 유한한 존재자들이라면, 그것들은 절대적으로 무한한 존재자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닌다. 그런데 (자명한바) 이는 부조리하다. 따라서 아무것도 실존하지 않거나 절대적으로 무한한 존재자가 다시 실존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스스로], 혹은 실존할 수밖에 없는 다른 것 안에서[=다른 것에 의존하여] 실존한다(공리 1과 정리 7을 보라). 따라서 절대적으로 무한한 존재자, 즉(정의 6에 따라) 신은 실존할 수밖에 없다. 증명 끝.

**주석.** 이 마지막 증명에서 나는 신의 실존을 후험적으로(a posteriori) 증명하고자 했고 그럼으로써 증명이 더 쉽게 이해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동일한 토대로부터 신의 실존이 선험적으로(a priori) 귀결되지 않기 때문[에 후험적으로 증명한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실존할 수 있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어떤 것(res)의 본성에 더 많은 실재성이 속할수록, 실존하는 데에 필요한 더 많은 힘을

causa seu ratio datur, quae ejus existentiam tollat, ac proinde Deus necessario existit. Q. e. d.

Aliter. Posse non existere impotentia est, et contra posse existere potentia est (ut per se notum). Si itaque id, quod jam necessario existit, non nisi entia finita sunt, sunt ergo entia finita potentiora ente absolute infinito; atque hoc (ut per se notum) absurdum est; ergo vel nihil existit, vel ens absolute infinitum necessario etiam existit. Atqui nos vel in nobis, vel in alio, quod necessario existit, existimus (vid. axiom. 1. et prop. 7.). Ergo ens absolute infinitum, hoc est (per defin. 6.) Deus necessario existit. Q. e. d.

S c h o l i u m . In hac ultima demonstratione Dei existentiam a posteriori ostendere volui, ut demonstratio facilius perciperetur; non autem propterea, quod ex hoc eodem fundamento Dei existentia a priori non sequatur. Nam, cum posse existere potentia sit, sequitur, quo plus realitatis alicujus rei naturae competit, eo plus virium a se habere ut existat; adeoque ens absolute infinitum sive Deum infinitam absolute potentiam existendi a se habere,

스스로 지닌다는 점이 귀결된다. 그러므로 절대적으로 무한한 존재자 즉 신은 절대적으로 무한한 실존 능력을 스스로 지니고 있으며, 이 때문에 그는 절대적으로 실존한다.

그렇지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증명이 얼마나 명증한지를 알아보기에 쉽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이는 그들이 오직 외적 원인들에서 비롯된 것들(res)을 숙고하는 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이것들 가운데 빨리 생기는 것들, 곧 쉽게 실존하는 것들은 또한 쉽게 사라진다는 것을 알고, 거꾸로 그들은 더 많은 것들을 포함한다고 파악한 것들을 실제로 더 어려운 것들, 즉 실존하기가 그만큼 쉽지 않은 것들이라고 판단한다. 하지만 이러한 선입견들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빨리 생기는 것은 빨리 사라진다는 문구가 어떻게 참인지를 밝힐 필요는 없고, 자연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모든 것들이 똑같이 쉬운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를 밝힐 필요도 없다. 다만 여기서는 내가 외적 원인들에 의해 생기는 것들에 관해서가 아니라, (정리 6에 따라) 어떠한 외적 원인에 의해서도 산출되지 않는 실체들에 관해서만 말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다시 말해 외적 원인들에 의해 생기는 것들(res)은, 이것들이 [외적 원인들 가운데] 많은 부분으로 성립하든 적은 부분으로 성립하든 간에, 이것들이 지니고 있는 완전성 즉 실재성을 모두 외적 원인들의 힘에 빚지고 있으며, 따라서 이것들

qui propterea absolute existit.

Multi\* tamen forsitan non facile hujus demonstrationis evidentiam videre poterunt, quia assueti sunt eas solummodo res contemplari, quae a causis externis fluunt; et ex his, quae cito fiunt, hoc est quae facile existunt, eas etiam facile perire vident, et contra eas res factu difficiliores judicant, hoc est ad existendum non adeo faciles, ad quas plura pertinere concipiunt. Verum, ut ab his praejudiciis liberentur, non opus habeo hic ostendere, qua ratione hoc enunciatum quod cito fit, cito perit verum sit, nec etiam, an respectu totius naturae omnia aequae facilia sint an secus. Sed hoc tantum notare sufficit, me hic non loqui de rebus, quae a causis externis fiunt, sed de solis substantiis, quae (per prop. 6.) a nulla causa externa produci possunt. Res enim, quae a causis externis fiunt, sive eae multis partibus constent, sive paucis, quicquid perfectionis sive realitatis habent, id omne virtuti causae externae debetur, adeoque earum existentia ex sola perfectione causae externae, non autem suae oritur. Contra, quicquid substantia perfectionis

의 실존은 오직 외적 원인의 완전성에서 비롯할 뿐, 자신들의 완전성에서 비롯하지 않는다. 도리어 실체가 지니고 있는 모든 완전성은 결코 외적 원인에 빚지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실체의 실존 또한 오직 그것의 본성으로부터 귀결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이것은 실체의 본질과 다름없다. 그러므로 어떤 것(res)의 완전성은 실존을 빼앗지 않고 오히려 정립한다. 반대로 불완전성은 이것을 빼앗는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것(res)의 실존에 관해서 [확신한다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무한한 또는 완전한 존재자의 실존, 즉 신의 실존에 관해서보다 더 확신할 수 없다. 말하자면 그것의 본질은 모든 불완전성을 몰아내고 절대적 완전성을 품고 있으며, 이로써 바로 그것의 실존에 관해 의심하는 모든 원인을 없애어 그것에 관해 최고의 확실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확신컨대, 약간만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에게도 이 점은 아주 명백할 것이다.

habet, nulli causae externae debetur; quare ejus etiam existentia ex sola ejus natura sequi debet, quae proinde nihil aliud est quam ejus essentia. Perfectio igitur rei existentiam non tollit, sed contra ponit; imperfectio autem contra eandem tollit, adeoque de nullius rei existentia certiores esse possumus quam de existentia entis absolute infiniti seu perfecti, hoc est Dei. Nam quandoquidem ejus essentia omnem imperfectionem secludit absolutamque perfectionem involvit, eo ipso omnem causam dubitandi de ipsius existentia tollit summamque de eadem certitudinem dat, quod mediocriter attendenti perspicuum fore credo.

[정리 12로 이어짐]

**정리 12.** 실체가 나뉠 수 있다는 결론이 실체의 속성으로부터 귀결된다면 이는 실체의 속성을 전혀 참되게 인식하지 못한 것이다.

**증명.** 다시 말해 실체가 것처럼 부분들로 나뉘는 것으로 인식된다면, 이 부분들은 실체의 본성을 보존하게 되거나, 아니면 보존하지 않게 될 것이다. 만일 첫 번째 것을 주장한다면, (정리 8에 따라) 각 부분은 무한할 수밖에 없고 (정리 7에 따라) 자기 원인일 수밖에 없으며 (정리 5에 따라) 각기 다른 속성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하나의 실체로부터 더 많은 실체들이 형성될 수 있다. 이는 (정리 6에 따라) 부조리하다. 덧붙여 이 부분들은 (정리 2에 따라) 자신이 속한 전체와 어떠한 공통점도 지니지 않을 것이고, 그 전체는 (정의 4와 정리 10에 따라) 자신의 부분들 없이 있을 수도 있고 인식될 수도 있다는 것 또한 의심의 여지없이 부조리하다. 반대로 만일 두 번째 것을 주장한다면, 즉 부분들이 실체의 본성을 보존하지 않게 된다면, 실체 전체는 동등한 부분들로 나뉠 것이기 때문에, 실체의 본성을 잃을 것이고 상실될 것이고 있음은 끝날 것이다. 이는 (정리 7에 따라) 부조리하다.

*P r o p o s i t i o XII.* Nullum substantiae attributum potest vere concipi, ex quo sequatur substantiam posse dividi.

*D e m o n s t r a t i o .* Partes enim, in quas substantia, sic concepta, divideretur, vel naturam substantiae retinebunt, vel non. Si primum, tum (per prop. 8.) unaquaeque pars debet esse infinita et (per prop. 7.) causa sui et (per prop. 5.) constare debet ex diverso attributo, adeoque ex una substantia plures constitui poterunt, quod (per prop. 6.) est absurdum. Adde, quod partes (per prop. 2.) nihil commune cum suo toto haberent et totum (per defin. 4. et prop. 10.) absque suis partibus et esse et concipi posset, quod absurdum esse nemo dubitare poterit. Si autem secundum ponatur, quod scilicet partes naturam substantiae non retinebunt; ergo, cum tota substantia in aequales partes esset divisa, naturam substantiae amitteret et esse desineret, quod (per prop. 7.) est absurdum.

**정리 13.** 절대적으로 무한한 실체는 나뉘지 않는다.

**증명.** 만일 실체가 나뉜다면, 부분들로 나뉠 것인데, 이 부분들은 절대적으로 무한한 실체의 본성을 보존하게 되거나, 아니면 보존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만일 첫 번째 것을 주장한다면, 같은 본성을 지닌 다수의 실체들이 있기 된다. 이는 (정리 5에 따라) 부조리하다. 만약 두 번째 것을 주장한다면, (위처럼) 절대적으로 무한한 실체는 있음을 멈출 수 있다. 이 또한 (정리 11에 따라) 부조리하다.

**따름정리.** 이들로부터 귀결되는바 어떤 실체도, 따라서 어떤 물체적 실체도, 그것이 실체인 한, 나뉘지 않는다.

**주석.** 실체가 나뉘지 않는다는 것은 오로지 다음을 통해서 아주 단순하게 이해될 것이다. 즉 실체의 본성은 오직 무한한 것으로만 인식될 수 있다는 것, 또한 실체의 부분을 통해서도 오직 유한한 실체만이 이해될 수 있는데, 이는 (정리 8에 의해) 명백한 모순을 함축한다는 것.

**정리 14.** 신을 제외하면 아무런 실체도 있을 수 없고 인식될 수도 없다.

**증명.** 신은 절대적으로 무한한 존재자이며, 그에 관해서는 실체

*P r o p o s i t i o XIII.* Substantia absolute infinita est indivisibilis.

*D e m o n s t r a t i o .* Si enim divisibilis esset, partes, in quas divideretur, vel naturam substantiae absolute infinitae retinebunt, vel non. Si primum, dabuntur ergo plures substantiae ejusdem naturae, quod (per prop. 5.) est absurdum. Si secundum ponatur, ergo (ut supra) poterit substantia absolute infinita desinere esse, quod (per prop. 11.) est etiam absurdum.

*C o r o l l a r i u m .* Ex his sequitur nullam substantiam et consequenter nullam substantiam corpoream, quatenus substantia est, esse divisibilem.

*S c h o l i u m .* Quod substantia sit indivisibilis, simplicius ex hoc solo intelligitur, quod natura substantiae non potest concipi nisi infinita, et quod per partem substantiae nihil aliud intelligi potest quam substantia finita, quod (per prop. 8.) manifestam contradictionem implicat.

*P r o p o s i t i o XIV.* Praeter Deum nulla dari neque concipi potest substantia.

*Demonstratio.* Cum Deus sit ens absolute infinitum, de

의 본질을 표현하는 어떠한 속성도 부정될 수 없고(정의 6에 따라), 또한 그는 반드시 실존하기 때문에(정리 11에 따라), 만일 신을 제외하고 어떤 실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신의 어떤 속성에 의해 설명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그리하여 동일한 속성의 두 실체가 실존할 것이다. 이는 (정리 5에 따라) 부조리하다. 그러므로 신 이외에는 아무런 실체도 있을 수 없고, 따라서 인식될 수조차 없다. 다시 말해 만일 인식될 수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실존하는 것으로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는 (이 증명의 첫 부분에 따라) 부조리하다. 그러므로 신 이외에는 아무런 실체도 있을 수 없고 인식될 수도 없다. 증명 끝.

**따름정리 1.** 이로부터 대단히 명백하게 귀결되는바 1° 신은 하나다. 즉 (정의 6에 따라) 자연에는 오직 한 실체만이 있고 그것은 절대적으로 무한하다. 이는 우리가 이미 정리 10의 주석에서 인정하는 바이다.

**따름정리 2** 귀결되는바 2° [공간상] 펼쳐있는 것(res extensam)과 생각하는 것(res)과는 신의 속성들이거나, 아니면 (공리 1에 따라) 신의 속성들의 변용들이다.

[정리 15로 이어짐]

quo nullum attributum, quod essentiam substantiae exprimit, negari potest (per defin. 6.), isque necessario existat (per prop. 11.), si aliqua substantia praeter Deum daretur, ea explicari deberet per aliquod attributum Dei, sicque duae substantiae ejusdem attributi existerent, quod (per prop. 5.) est absurdum; adeoque nulla substantia extra Deum dari potest et consequenter non etiam concipi. Nam si posset concipi, deberet necessario concipi ut existens; atqui hoc (per primam partem hujus demonstr.) est absurdum. Ergo extra Deum nulla dari neque concipi potest substantia. Q. e. d.

Corollarium I. Hinc clarissime sequitur I°. Deum esse unicum, hoc est (per defin. 6.) in rerum natura non nisi unam substantiam dari eamque absolute infinitam esse, ut in scholio prop. 10. jam innuimus.

Corollarium II. Sequitur II°. rem extensam et rem cogitantem vel Dei attributa esse, vel (per axiom. 1.) affectiones attributorum Dei.